

〈일반논문〉

## 楊開道の 清河縣 향촌건설실험과 근대지식의 농촌사회 전파 기제\*

최은진\*\*

〈목차〉

- I. 머리말
- II. 양카이다오의 농업구국론과 농촌사회연구
- III. 清河 향촌건설실험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양카이다오의 농촌사회건설 사상과 실천을 중화민국시기 향촌건설 운동과 농촌사회학 연구의 지적 풍토를 연계한 바탕에서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향촌건설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유파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서구지식의 사회적 파급 경로와 기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근대 사회학 학문을 도입한 燕京大學의 사회학과 지식인들은 학파를 형성하였고 이들 燕京學派는 사회조사와 실험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근대적 지식을 창출하는 사회조사는 중국 농촌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촌을 개량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2102737).

\*\*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부교수

하고자 하였다. 양카이도는 이러한 농촌조사를 직접 수행했고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淸河실험을 수행했다.

실험은 궁극적으로 농촌개량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농촌지도자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농촌지도자는 대학의 근대적 지식을 습득한 人材여야 하므로 대학과 농촌의 연계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서구의 근대적 지식이 중국 농촌에 대학을 통해 농촌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작용하게 되고 大學이 양성한 지식인이 농촌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淸河縣의 농촌건설실험을 통해 전통조직에 대한 사회조사가 농촌사회의 조직화에 적용되고 농촌의 組織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연경학파의 사회학 학문의 중국화의 과정이기도 하며 향촌건설운동의 지식인 활동공간의 확장이기도 할 뿐 아니라 대학과 지식인, 근대지식이 농촌사회를 변화시키는 機制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주제어

지식기제, 양카이다오, 연경학파, 청하실험, 합작사, 사구연구

---

## I. 머리말

양카이다오(楊開道, 1899.6.7-1981.7.23)는 중국의 농촌사회학 분야의 최초의 박사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사회를 연구하였다. 그가 근무했던 燕京大學의 제자인 費孝通은 후에 회고를 통해 양카이다오는 “사회학 지식을 통해 그 당시 농촌의 빈곤을 타개하고자 한 분이였다. 나는 그에게 이러한 점을 배웠고 그는 내 일생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고

하였다.<sup>1)</sup> 양카이도가 근무한 연경대학 사회학과는 연경학파로 불리며 학술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양카이다오 역시 연경학파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이외 世界書局에서 간행했던 농촌총서 시리즈 14권 가운데 9권을 저술하여 중국농촌사회연구와 지식을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학술활동과 함께 양카이다오는 향촌건설운동에도 참여하여 1920년대에서 1930년대 걸쳐 전국의 600여 개 조직과 1,000여 개 실험구의 한 유파로 참여하였다. 1933년 향촌건설협진회 활동을 하고 향촌공작토론회를 주도하는 등 대표적 활동가였던 晁陽初, 梁漱溟 등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화북지역의 향촌건설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양카이다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향촌건설운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주로 옌양추나 량수밍의 활동과 조직에 대한 연구나 南京國民政府의 縣政建設實驗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sup>2)</sup>

그 동안 양카이다오의 연구가 미흡했던 것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학과가 다시 설립되면서 최근에야 연구가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기존의 양카이다오에 대한 연구는 그의 농촌사회연구가 지닌 특성을 밝히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의도와 목적을 단편적으로만 제시하고 있다.<sup>3)</sup>

1) 費孝通, 『一代良師』, 1988.5.3. (<http://www.ihss.pku.edu.cn/>, 2020.12.3.)

2) 향촌건설운동의 다양한 유파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은진, 「中國 鄉村建設運動의 확산과정과 鄉村教育의 함의」, 『史林』 72, 2020 참고. 양카이다오는 1949년 이후 농촌의 토지개혁에 참가하지 않았고 계급조화를 주장하여 반동파로 지목되었다. 黃永軾, 「批判楊開道の階級調和的反動謬論」, 『理論戰線』 3期, 1958, 64쪽.

3) 馬威, 「楊開道學術研究綜述」, 『華中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總 80期, 2009; 田耕, 「“社會調查”的內與外: 思考早期社會研究的兩種思路」, 『學海』 5期, 2017; 李爽, 「中國社會學社成員對鄉村建設的研究與分歧」, 『社會科學戰線』 第 5期, 2007; 李爽, 「20世紀二三十年代社會學者農村組織模式研究」, 『北方論叢』 第 4期, 2011 등이 있다.

중화민국시기 사회학의 학문적 체계는 서구에서 수용된 것으로 이후 중국화 되어 나갔는데 그 과정과 내용이 주로 연구되었고 양카이다오에 대한 연구도 큰 범주에서 이러한 연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양카이다오의 농촌건설사상과 실천을 중화민국시기 향촌건설운동과 농촌 사회학 연구의 지적풍토와 연계한 바탕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은 향촌건설운동의 다양한 유파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서구 지식의 사회적 파급의 경로와 기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지식의 기제를 근대학문인 농촌사회학의 지식과 연경대학의 지식인들이 형성한 학파, 농촌지역 공간인 清河實驗縣 간의 상호작용으로 바라보고 이를 규명하고 그 함의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카이다오의 농촌사회건설사상에 나타난 특징을 지식을 통한 통치와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근대 지식인들이 독립적 영역을 제도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자 한다.<sup>4)</sup> 또한 양카이다오의 농촌사회에 대한 연구와 청하실험을 통한 이론적 검증과 실천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연경학과, 중국사회학사 등 조직과 연결하여 연구한 것을 참고하되<sup>5)</sup> 양카이다오를 중심으로 학술계가 사회운동에 참여

4) 서구 관념과 중국 고유의 관념을 결합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지식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侯俊丹, 「制度變遷下的知識治理: 早期燕京學派的清河試驗」, 『學海』 5期, 2017, 96-97쪽.

5) 학계의 청하실험에 대한 연구는 2013년에 시작되었는데 대표적 연구는 張德明, 「教會大學與民國鄉村建設—以燕京大學清河實驗區爲個案的考察」, 『北京社會科學』 第 2期, 2013; 陳爭平, 張順周, 「北京農業現代化的先聲—民國時期清河經濟建設實驗概述」, 『北京社會科學』 第 3期, 2013; 張學東, 齊鳳, 「近代“清河實驗”及其“學院派”社會工作風格」, 『河北廣播電視大學學報』 第 5期, 2015; 彭秀良, 「民國時期的鄉約再造實踐」, 『中國社會工作』 第 4期, 2020; 蕭子揚, 「清河實驗: 當代中國農村社區治理的路徑選擇」, 『世界農業』 第 7期, 2017; 顏芳, 「燕京大學鄉村建設實驗及其現實啓示」, 『教育史研究』 第 2期, 2010; 齊釗, 「社區·區域·歷史: 理解中國的三種進路—對燕京大學社會學系學術傳統與研究特色的再分析」, 『開放時代』 6期, 2013; 趙旭東, 齊釗, 「地方志與風俗的區域研究——對早期燕京

하고 작용하는 것으로 지식기제의 함의를 찾아내는데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양카이다오가 농촌사회를 연구하게 된 배경으로 農業救國 사상의 형성과정에 국한하여 살펴보되<sup>6)</sup> 燕京大學의 燕京學派 형성과 농업구국과 공업구국 논쟁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후 청하실험현에서의 실천과정을 양카이다오의 농촌건설사상과 연계지어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향촌건설운동이 토지분배문제에 대해 개량적으로 접근했기에 실패했다는 평가나<sup>7)</sup> 농민과 지식인의 괴리를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었다는 한계와 함께 농촌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음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양카이다오의 농업구국론과 농촌사회연구

### 1. 중국 농촌의 위기와 ‘농업구국’ 논쟁

1921년 魯迅의 소설 『고향』이 출판된 것은 도시 지식인들의 황폐화된 농촌에 대해 관심이 증대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양카이다오 역시 그

---

大學社會學系兩篇畢業論文的分析」, 『民俗研究』 1期, 2012; 朱濤, 趙麗, 「燕大社會調查與中國早期社會學本土化實踐」, 『北京社會科學』 4期, 2006 등이 있다.

- 6) 양카이다오의 농촌사회연구가 鄉約制度에 대한 연구로 심화되는 과정까지 파악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 7) 청하실험은 토지분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농촌개량에서 영향이 미미했다고 본 것으로 張學東, 齊鳳, 앞의 논문, 2015; 王嬰, 「中國專業社會工作的非均衡, 非協調發展—歷史社會學視角下國家, 學術和社會的互動過程」, 『華東理工大學學報』 第 1期, 2018 등이 있다.

러한 지식인들 가운데 하나였다. 1920년대 말中等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은 110만명 정도로 귀국한 유학생들과 함께 세력을 형성해 나갔다. 5·4운동 이후 전통 신사들이 지녔던 구세정신을 이어가게 된 이들은 학교, 언론, 결사 등을 통해 공공영역을 형성해 나갔다. 1921년 전국의 출판물은 1,134종에서 1920년대 말에는 2천종으로 증가했고 『東方雜誌』를 중심으로 농촌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sup>8)</sup>

1920년대 이래 농촌위기는 심각하게 나타났다. 생산의 낙후, 농촌금융의 고갈, 토지의 점병 등 다양한 진단이 내려졌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크게 느껴졌다. 농촌도 근대화 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그 방안으로 平均地權의 실현, 은행과 합작사의 설립, 문화와 농업기술의 전파, 공민권리의 교육 등이 제기되었다.

전통시대에서 근대로 전환되는 시기 농촌사회는 전통이 잔존하지만 농촌사회를 지속시키는 질서는 변화되어 나갔다. 신사층의 권위는 농촌사회에서 과거처럼 유지하기 어려웠고 농촌사회의 인제는 도시로 향했다. 이러한 농촌사회질서가 변화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논의가 벌어졌다.

중국 학술계의 농업구국과 관련된 논쟁은 1923년 8월 12일 북양정부 시기 교육총장이던 章士釗가 『大公報』와 上海의 『新聞報』, 『甲寅週刊』 등에 실린 글에서 시작되었다. 요점은 18세기 이후 유럽의 공상업은 농업을 피폐하게 하고 기형화하는 댓가로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 왔지만 세계대전까지 초래했다고 보고 중국은 서구의 공상업 발전모델이 아닌 농업을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1927년까지 이어졌으며 그는 농업구국을 주장한 대표자로 인식되었다.<sup>9)</sup>

8) 範立君, 「20世紀二三十年代中國知識界對農村問題的關注——以《東方雜誌》爲中心」, 『社會科學戰線』 9期, 2016, 105쪽.

9) 章士釗, 「業治与農(告中華農學會)」, 『新聞報』, 1923年 8月 12日; 楊銓도 10月 28

이렇게 중국의 농촌위기의 발생을 도시화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문제로 파악한 지식인들은 도시의 공업화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혹은 농촌의 발전을 먼저 추구할 것인지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다. 이러한 논쟁은 중국사회를 현대화 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정치적 실천과도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 논쟁은 중국사회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기반하고 있고 청말민초의 전통적인 경사학문의 학풍이 현대 사회과학에서 배출된 새로운 지식으로 계승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楊開道도 역시 이러한 지식인들의 인식과 다르지 않았다. 호는 導之이며 호남성 新化縣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는 사립학교를 다녔고 1920년 2월 上海의 滬江大學 預科에서 공부하였으나 상업이 아닌 농업에 뜻을 두게 되었다. 1920년 9월 남경고등사범학교 농과에 진학한 그는 교육구국에도 뜻을 두었는데 “孟憲承 선생이 번역한 『黑偉人』을 읽고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후 상업 공부를 포기하고 농촌사업과 교육사업에 종사하기로 결심했다.”<sup>10)</sup>고 하였다. 특히 1923년에는 농민과의 연계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6년 전 民國 12년 여름 작자는 농학생으로 동남대학 홍무면업장에서 실습을 하여 면화, 옥수수, 황두의 교배에 흥미를 지녔다. …그러나 부지불각시 농업계의 중요한 결점을 느끼게 되었다. …(농민)은 고생을 하여 근심을 하지만 국내의 농학생과 국외의 농학박사는 어떠한 연계도 없다. 농민과 관련이 없는

日 『申報』에 〈중국은 농업국가가 될 수 있는가中國能長爲農國乎?〉를 발표했고 章士釗는 이후 1927년 『잡인월간』에 〈왜 농촌으로 국가를 수립해야 하는가何故而農村立國〉를 발표했다.

10) 黑偉人은 Booker T. Washington(1856-1915)로 교육가이자 작가 등으로 활약한 흑인엘리트였다. 楊開道, 「我爲什麼參加農村工作」, 『民間』, 1935(<http://www.ihss.pku.edu.cn/>), 2020.12.3.

조교, 전문가,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친구, 농민과 전문가의 소개인이 되어야 하며 전문가들이 농민에게 복무하고 농민이 전문가를 이용하게 하겠다고 결심하였다.<sup>11)</sup>

고 하였는데 농민에게 복무하고 이용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로 한 것이다. 또한 1923년 『東方雜誌』에 「귀농운동」이란 글을 써서 농업의 진흥, 농민을 구제할 귀농운동이 중국에 가장 필요한 구국운동이라고 하였고<sup>12)</sup> 전문가가 되기 위해 1924년 국립 동남대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의 단결이 강하지 못하고 조직도 좋지 못하니 중국 농민의 문제는 단순히 농민 문제가 아닌 농촌문제이며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고 인식했다. 농촌사회를 새롭게 조직하는 문제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 자치의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유학하였고 그래서 중국농촌사회연구를 하게 되었다<sup>13)</sup>

라고 하였는데 농업구국의 구체적 목표를 농촌의 자치의 실현으로 보고 있었고 이를 공부하기 위해 농촌사회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는 아이오와 농학원, 미시건 농업대학에서 호손(H.B.Hawthorn), 버터필드(K. L.Butterfield)에게 농촌사회학을 배웠다. 호손은 미국 사회심리학파의 대표적 인물로 '조직 간의 상호관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적인 논지로 하였고 버터필드는 '미국생활운동'의 창시자로 '좋은 농업, 좋은 경영, 좋은 생활'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양카이다오는 양자에게 깊은 영향을

11) 楊開道, 『農村自治』, 上海: 世界書局, 1930.

12) 楊開道 . 「歸農運動」, 『東方雜誌』, 1923(14), 11-17쪽.

13) 楊開道, 「我爲什麼參加農村工作」.



받았다.

미국의 유학을 통해 농촌 사회는 촌민간의 공동심리와 공동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sup>14)</sup> 또한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등의 농촌 상황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미시간 대학에서 농촌경제와 농촌사회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중국 최초의 농촌사회학 박사가 되었다.<sup>15)</sup>

1927년 7월 귀국 후에는 막 시작된 중국의 농촌연구를 수행하고 연경 대학의 農科에서 근무하였으나 주로 보조적인 일만 하였다. 이후 연경대학 교장이 농촌생활위원회를 조직하자 위원회의 주석을 맡게 되고 '하북 농촌생활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했다. 이후 농과가 폐지되자 모교인 동남대로 가서 農政科를 설립했다. 동남대 외 上海의 大夏大學, 復旦大學, 南京의 中央大學農學院에서도 교육을 하다가 1928년 7월 같은 연경대학 사회학과의 許仕廉(1896- ) 교수의 요청으로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sup>16)</sup>

당시 연경대에는 張鴻鈞교수와 시카고 학파로 도시사회 연구자인 파크(Robert Eara Park, 1864-1944)교수가 있었고 농촌연구는 농과뿐 아니라 경제학과 사회학과, 교육학과 등의 학제 간 연구의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농촌사회학 연구는 미국의 연구성과를 중국내에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양카이다오가 1930년 출판한 『農村社會學』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호손의 『농촌생활의 사회학』과 버터필드의 『농장주와 신시대』에 기반하여 저술되었다.<sup>17)</sup> 1934년 『農村社會學概論』을 저술한

14) 郭占鋒 吳麗娟 付少平, 「論楊開道の中國農村社會建設思想」, 『社會建設』第6卷第4期, 2019, 88-96쪽.

15) 楊開道, 「我爲什麼參加農村工作」.

16) 許仕廉은 미국 아이오와 대학 철학 박사로 증일전쟁 이후 미국으로 갔다.馬威, 「楊開道學術研究綜述」, 『華中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總80期, 2009, 39-45쪽.

17) 미국과 아일랜드는 오랜동안 농촌생활운동을 전개했는데 19세기 공업혁명과 도

心哲(1898-1984)<sup>18)</sup>이나 1941년 『향촌사회학강요』를 출판한 童澗之(1899-1933)가 있지만 초기에 미국의 농촌사회학을 소개하고 도입한 학자는 양카이다오라고 할 수 있다.

양카이다오는 1930년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中國社會學社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당시 중국사회학사는 北京과 上海, 南京, 廣州 등에 소재한 大學의 사회학, 경제학, 농학, 철학 전공의 연구위원들로 구성되었지만 각자가 서구에서 수용한 이론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도시를 연구한 남경금릉대학 교수인 吳景超(1901-1968)는 1929년 8월 『都市社會學』을 출판하고 시카고 대학의 도시커뮤니티(社區) 연구방법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반면 농업구국을 주장한 학원파는 주로 양카이도와 미국 코넬대학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江西農學院 원장이던 董時進(1900-1984)과 일본에서 유학한 경제학자 漆琪生(1904-1986), 미국 일리노이 대학 사회학 박사 출신의 孫本文(1892-1979), 陳達, 潘光旦, 許仕廉, 言心哲 이었다.<sup>19)</sup>

---

시발달로 농업이 쇠락하자 미국정부는 농업과학을 통해 생산량을 늘이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제한, 합작, 금융지원, 농장개량 등으로 농민의 수입을 증대시켜 나갔다. 그러나 현저한 농촌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자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농촌의 상황은 교육의 불량, 경지면적의 협소, 교통의 미발달, 과도한 노동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농민의 생활을 개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되 농촌의 농민과 농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양카이다오 역시 이러한 미국 사회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하였다. 閻明「楊開道與清河“實驗室”」, 『中國社會導刊』 第 6期, 2008, 48-51쪽.

18)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대학에서 사회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귀국 후 1928년 연경대학에서 근무하고 1929년 중앙대학에서 이후 상해 복단대학에서 근무하였다(<https://baike.baidu.com/item/%E8%A8%80%E5%BF%83%E5%93%B2/3216392?fr=aladdin>).

19) 郭占鋒 吳麗娟 付少平, 「論楊開道的中國農村社會建設思想」, 88-96쪽; 閻書欽, 「民國學界對美國社會學理論的選擇與融會: 對民國時期社會學中國化一個側面的考察」, 『近代史學刊』 第 10輯, 2013, 120쪽.

이들 중국사회학자의 사회학자들 대부분이 미국 유학출신자들이었으며 미국 사회학 연구성과를 자신의 전공에 따라 소개하는 상황이었다.<sup>20)</sup>

농업구국과 공업구국의 논쟁은 1930년대 『獨立評論』 잡지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1934년 11월 4일 吳景超는 인류사회의 진화는 공업화로 나가는 것이며 도시가 농촌을 구제할 것이라고 하였고 사회민주당의 孫倬章은 농업이 발전하려면 먼저 공업이 발달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1)</sup>

공업구국론자들은 농업구국론을 반박하며 농촌건설 주창자들의 주장은 복고론일 뿐이라고 하였다. 도시가 발전하여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흡수해야 하는데 중국의 농촌은 규모가 작아 농촌에 기반해 정부가 재정수입을 늘릴 수 없다고 하고 공업발전을 통해 교통, 금융의 발전으로 확대되어야 농촌의 발전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2)</sup> 이외 陳序經(1903-1967)은 공업구국을 주장하며 농촌건설운동은 너무 완만하고 이러한 복고적 방안으로는 농촌문제의 해결이 안된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중국은 전통적인 村治 방식으로 향촌건설을 하면 안된다고 비판하였다.<sup>23)</sup> 이러한 공업구국론자들의 주장은 당시 향촌건설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고 梁漱溟(1893-1988) 등의 주장에 대응한 것이기도 하였다.<sup>24)</sup>

20) 1948년 당시 중국사회학자를 조사한 결과 미국출신유학자 71명, 프랑스 13명, 일본 10명, 영국 9명, 독일 4명, 벨기에 1명으로 미국 유학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초기 사회학 관련 번역서는 일어를 번역한 것이 많았으나 1920년대는 미국 책을 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1935년 孫本文이 『사회학원리』를 출판한 것을 기점으로 사회학이 중국화되었다고 본다. 田正平, 「劉保兄, 教會大學中國籍教師與中國近代大學的學科建設——以燕京大學社會學系爲個案」, 『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期, 2007.

21) 吳景超, 『第四種國家的出路』, 商務印書館, 1936年.

22) 李爽, 「中國社會學社成員對鄉村建設的研究與分歧」, 198-202쪽.

23) 陳序經, 『中國文化的出路』, 商務印書館, 1934年.

24) 鄭杭生, 李迎生, 「中國早期社會學中的鄉村建設學派」, 『社會科學戰線』3期,

당시 향촌건설운동을 실행 중이던 량수밍과 晏陽初(1890-1990)도 농업구국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들은 국제적으로 성행하는 통제 경제나 계획경제가 새로운 추세인 상황에서 중국을 공업구국으로 이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농촌부흥으로 공업을 이끌어가는 향촌건설이 중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농촌의 토지개혁이나 농업생산량의 증가가 바탕이 되어야 공업화가 가능했던 것이어서 농촌의 희생이 전제된 공업화를 해야 한다는 점이 논쟁을 가르는 핵심일 수 있었다.<sup>25)</sup>

당시 공업구국론은 도시를 중심으로의 발전을 강조하는 성격을 띤 반면 농촌을 중심으로 발전을 강조한 것이 농업구국론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許仕廉과 楊開道은 이론적 대응을 하였는데 이들은 소련이 시행하는 계획경제, 미국의 뉴딜 정책과 중국의 향촌건설운동은 같은 것이므로 민족 자구운동의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sup>26)</sup> 그리고 1939년 12월 20일 〈時代精神〉 월간 1권 5기에 周憲文의 〈중국은 농립국이 될 수 없다中國不能以農立國〉라는 글에 대해 양카이다오가 1940년 1월 7일 重慶 〈新蜀報〉에 〈중국은 어떻게 농립국이 되는가中國以何農立國〉로 대응하여 “과거 중국은 농립국이었고 현재의 중국은 농립국이며 장래 중국도 농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1940년대까지 논쟁이 이어졌다. 양카이다오는 중국은 인도식의 중대농업국가가 아니며 덴마크식의 순수농업국가나 오스트렐리아식의 부용(附庸)농업국가가 아닌 자급자족할 수 있고 독립 자주적인 농업국가가 되어야 한다. 공업상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업국가를 건립

2000年, 242쪽.

25) 蔡雙全, 「20-30年代學術界關於“以農立國”與“以工立國”之爭探析」, 『湖北大學成人教育學院學報』第29卷第5期, 2011年, 61-62쪽, 77쪽.

26) 李爽, 「中國社會學社成員對鄉村建設的研究與分歧」, 『社會科學戰線』第5期, 2007年, 199쪽.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넘어서 국가의 입국 방향까지 논의를 확대해 나갔다.<sup>27)</sup>

양카이다오는 농촌의 자치에 관심을 갖고 지식을 통해 농촌의 부흥을 도모하고자 미국의 농촌사회학 지식을 수용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사회학사와 연경대학의 동료들 비롯한 지식인들의 농업구국과 공업구국논쟁에 참여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식인들의 논쟁과 서구 사회학의 수용과정이 양카이도 농촌사회연구와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燕京學派의 社區 연구와 사회조사

농업구국론의 형성과 함께 양카이도의 농촌사회사상을 형성하는데 있어 연경학파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경대학 사회학과는 도시연구와 관련된 서구의 이론을 도입하여 연구를 진행했고 서구학자인 갬블(Sidney David Gamble)이 인문생태학적 연구를 진행했다. 버지스(John S. Burgess, 1883-1949)는 北京의 인구, 群體, 조직, 社區에 대한 관찰을 하였다.<sup>28)</sup> 1930년대에는 吳文藻(1901-1985)도 참여해서 연경대학 사회학과 청년들이 “功能學派” 이론을 내세우고 참여관찰법을 사회학과에서 내세워 현지 社區 연구의 성과를 내게 된 것도 연경학파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다.<sup>29)</sup>

양카이다오가 미국 유학시 영향을 받았던 1921년 연경대학을 방문한

27) 羅朝暉, 「“以農立國” 与 “以工立國” 之爭—20 世紀40 年代關於中國發展道路論爭的再認識」, 『長春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26卷 第1期, 2007, 43-47쪽.

28) 楊燕, 「步濟時對創辦燕京大學社會學系的歷史貢獻」, 『北京教育學院學報』 第32卷 第2期, 2018, 85-91쪽.

29) 張德明, 「教會大學与民國鄉村建設—以燕京大學清河實驗區爲個案的考察」, 57-62쪽.

베일리(L. H Bailey)와 버터필드는 농촌도 공평한 자원분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농촌사회 연구에 대한 관점도 학풍에 영향을 끼쳤다.

연경대학 사회학과는 농촌사회변천을 살펴보는데 있어 기존의 인문생태학적 접근을 취했다. 또한 조직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과 조직의 형태는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에서 유기적인 생태체계와 관련지어 규정된다는 것이라는 접근방식을 중시했다. 또한 농촌사회의 도시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는 인구유동성이라고 보았다.

한편 인문생태적 분석방식에 근거해 다학과가 사회개량을 실천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연경대학의 서구학자들이 중국사회연구에 대한 반성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구 사회학 학문의 중국의 실정에 적용하고자 하는 점이 연경학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였다.

사회조사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1926년 연경대학에 왔던 李景漢(1895-1986)이 수행하여 1926년 掛甲屯, 黑山扈, 馬連窪를 포함해 北京 근교의 清河縣을 조사하였다. 당시 黃土北店村은 부근 清河 모직물공장에서 일하는 인구가 1.17%였다. 가정수공업은 식품가공이나 노역복무를 주로 해서 제분소, 두부제작, 기와제작, 목공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掛甲屯은 15.6%가 종사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황토북과 남에는 상점이 분포되어 있었고 직업의 분업은 농촌사회 내부의 일상과 소비 양상에 따라 나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조사 이후 1928년 가을 연경대학 사회학과와 사회복무학과가 미국 록펠러 기금을 받아 사회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楊開道와 許仕廉 등이 清河鎮(현재 북경 海澱區 清河街道)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지역은 농촌건설 실험지로 선정된 곳이었다.

清河鎮은 北平(北京)에서 9킬로 떨어진 德勝門에서 약 2킬로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부근의 40촌을 포함된 곳으로 당시 북평북교, 宛平縣, 昌平

縣 등 행정구역이 걸쳐 있었다. 이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방식과 달랐는데 이러한 지역선정 방식은 연경학파의 학문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기독교 선교의 목적으로 회교도가 비교적 많았던 지역이 선정되었던 것도 관련이 있지만 미국의 사회심리학과 농촌사회학 연구의 방향에 따라 農村社區가 중시되었기 때문이었다.<sup>30)</sup>

연경학파는 청하진의 사회, 경제, 정치에 대한 사회조사를 하면서 정치, 가족 단위를 범위로 하지 않고 경제교환과 인구의 유동이 일어나는 사회를 조사 범위로 선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층사회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방식 하에 형성된 자연사회경제구역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종교나 특수한 관습과 함께 생산과 무역의 분화로 구분되고 다른 지리지역과의 왕래도 이루어지는 공간이 기층사회라고 보았다. 清河는 이러한 생산교환관계의 체계와 도덕풍속이 일치하는 범위로 선정된 것이었다.<sup>31)</sup>

이러한 조사에 내재된 양카이다오의 인식은 1929년 출판한 『農村社會學』에도 나타난다. 이는 질레트(J. M. Gillette)와 맥클리버(R. M. MacIver) 등의 학설을 바탕으로 저술되었고 農村社區를 지방공동사회로 번역하면서 공동생활 즉 공동의지, 공동사업에 지역 공간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양카이다오와 함께 조사에 참여했던 許仕廉은 '區域'을 사회를 경계 짓는 단위라고 보고 정부의 헌정체제가 구축하려는 기층재건의 방식과는 다른 것임을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양카이다오는 이러한 사구개념을 바탕으로 농촌사회의 변천은 도시화와 현대화로 촉발한 것이라 보았다.<sup>32)</sup> 즉 市鎮사회는 향촌의 농산품생산과 교역을 둘

30) 侯俊丹, 「制度變遷下的知識治理: 早期燕京學派的清河試驗」, 96쪽; 張學東, 齊鳳, 「近代“清河實驗”及其“學院派”社會工作風格」, 13쪽.

31) 侯俊丹, 「制度變遷下的知識治理: 早期燕京學派的清河試驗」, 97쪽.

32) 楊開道, 『農村社會學』, 世界書局, 1929, 8-9쪽.

리싸고 형성된 시장체계에서 출현한 것이며 시장을 핵심으로 형성된 많은 촌락의 연합이고 시장화에 기반한 區域경제가 공업화 도시의 기초를 형성한 것이라고 하였다.<sup>33)</sup> 이는 연경대학 갬블 교수가 전통적인 군사와 정치적 도시가 아닌 농촌을 통해 도시가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과도 일맥상 통한다.

양카이다오는 또한 시진사회는 시장체계를 구비한 것 외에 현대조직화의 기초가 되는 지방공동체가 있었다고 보고 이 지방공동체는 지방성(locality) 관념을 핵심으로 하는 정신적인 교감생활을 하였으며 직업의 분업을 기초로 목적이 있는 조직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농민과 토지, 자치권을 지닌 주권공동체의 성격도 지녔다는 것이다.<sup>34)</sup> 그러나 자연적인 전통촌락과 集鎮은 위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촌락과 시진이 공동구성하는 향진공동체(rurban community)가 형성되어야만 새로운 지방성 관념에 의한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35)</sup> 서구의 도시형성이론을 수용해서 중국의 촌락과 시진으로 형성되는 향진공동체를 설명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관계도 규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농촌의 도시형성에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중요했고 농촌에 도시형성의 동력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즉 농촌의 발전이 도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농촌이 근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산은 시장과 연동되어 갔고 도시와 긴밀히 연결되므로 국가의 지방정치(治理)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청말민초 이래 국가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바를 잘 이해한 가운데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929년에는 버나드(Taylor, John Bernard, 1878-1951) 연경대학 경제

33) 楊開道, 『農村社會學』, 17-18쪽.

34) 楊開道, 『農村社會學』, 8-9쪽.

35) 馬威, 「楊開道學術研究綜述」, 44쪽.



학과 교수와 경제학과 학생들이 清河 集市를 연구하는 등 市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시장과 농촌사회의 관계, 기타 사회정치적 요소나 외부의 힘과 시장의 관계, 도시와 농촌 간의 자원과 이익분배의 상황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양카이다오는 『社會學研究法』을 출간했는데 서구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인 사회연구방법, 역사방법, 사회조사법, 개별연구법, 통계학 방법을 소개한 것을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청하조사는 항목별 통계가 있지만 중국농촌사회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나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색하지 않았다. 사회조사방법은 초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개괄적 분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활동을 묘사할 수 없고 깊게 이해할 수 없다. 사회조사는 일정한 표와 숫자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농촌생활의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가... 중국 현재의 농촌사회, 농촌생활은 고대의 방식이고 절반은 종교적인 전형이라 비교적 세밀한 방법으로 오랜 기간 살펴보지 않으면 결코 농민을 진정으로 동정 할 수 없고 농민의 내적생활도 파악할 수 없다<sup>36)</sup>

라고 한 것은 초보적인 통계자료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농촌사회의 특성인 전통방식과 종교적 생활을 고려한 오랜 기간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이며 이는 서구의 사회조사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중국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張鴻鈞이 1933년에 실험보고에서

36) 楊開道, 「我爲什麼參加農村工作」, 『民間』, 1935.(<http://www.ihss.pku.edu.cn/>, 2020.12.3.).

…그러나 서구의 일부분 사회의 사실 논거에 근거하여 전인류의 행위를 관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목전의 대변천에 대해 사회학자는 상아탑에서만 머물러 이상국을 환상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현실의 환경에서 결론을 찾아야 한다.<sup>37)</sup>

라고 한 바를 보면 양카이다오와 張鴻鈞 모두 중국사회에 근거한 사회학 연구와 사회조사의 의미를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청하에 대한 조사결과는 1930년 許仕廉과 함께 작성해서 『清河: 一个社會學的分析』(Chinghe: SociologyAnalysis) 로 출판되었다.<sup>38)</sup> 사회 조사는 1930년 2월 실험현 성립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이러한 조사에 대해 농민들은 오해하고 거부하기도 했으나 점차 호응을 얻었다.

한편 1932년에는 파크(Robert Eara Park, 1864-1944)가 중국방문을 하여 燕京學派의 사회조사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불어넣었다. 이는 농촌 사회가 변화되는 기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인구분포 통계 방법을 통한 조사 외에 직업의 분업체계로 인한 인구 유동성 부분을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했다. 1933년 許仕廉이 〈파크교수 소개〉라는 글에서 이를 밝혔고 구역 생태 계통의 동태는 인구와 제도의 시공 분포의 각종 유형을 살펴야 하고 직업분업조직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연경학파는 이러한 파커의 생태조직화 연구의 방법을 의식적으로 수용하였다. 양카이도 역시 청하에 대한 사회조사에서 대상을 전체 시진사회내부를 농업생산구, 지역구와 근처 도시구로 하여 농촌사회의 시장교환을 통한 도시화로의 변화과정과 함께 농촌의 직업분업체제도 조사한 바 있었다.

37) 張鴻鈞, 「燕京大學社會學系清河鎮社會實驗區工作報告」, 1933年, 鄉村工作討論會編, 『民國叢書 第4編 鄉村建設實驗 第一二集』, 中華書局, 1935, 63쪽.

38) 郭占鋒 吳麗娟 付少平, 「論楊開道的中國農村社會建設思想」, 2019.7, 88-96쪽.

1932년에서 1935년까지 또 다시 청하진을 중심으로 계통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萬樹庸이 黃土北店村을 조사하고 蔣旨昂은 盧家村을 조사하고 실험구 연구부가 청하진 인근의 昌平縣을 조사하였다. 또한 張折桂, 邱雪峨는 清河鎮의 풍속을 조사하고 劉志博는 北平(成府村을 포함)의 화폐를 조사하였다. 한편 1933년에는 李樹靑, 陳聚科 등 학생이 1934년과 1935년 北郊에서 '대출'에 대해 조사하고 청하실험구 지역인 東北旺, 回龍觀, 唐家嶺 등 지역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였다.<sup>39)</sup> 이상의 조사는 黃迪이 1938년 '清河村鎮 社區調查'로 발표하였다.

양카이다오가 법학원 원장이 된 이후에는 연경대학의 사회학과와 정치학과 경제학과는 연구의 초점을 농촌연구에 두게 되었다.<sup>40)</sup> 이렇게 연경학파가 도시중심의 연구에서 농촌연구로 나아가게 된 것은 양카이다오와 관련이 깊었다.

양카이다오를 포함해 연경학파의 사구연구의 특성과 사회조사 방법을 강조하는 특성은 서구에서 도입된 사회학이 중국사회연구에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형성되었다.

### Ⅲ. 清河 향촌건설실험

#### 1. 清河縣의 자연조절기능의 상실

연경학파의 청하진 조사의 결과는 향촌건설실험의 바탕이 되는데 그

39) 齊釗, 「黃迪與社區研究」, 『中國社會科學網-中國社會科學報』(<http://news.cssn.cn>), 2020年 01月 06日.

40) 邱澤奇, 「楊開道先生與他的農村社會學工作」, 『社會學研究』 5期, 1987, 25-27쪽.

렇다면 청하진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처음 이곳을 조사했던 李景漢의 조사에 의하면 청하진은 청대 강희 48년 원명원을 건립하는데 복무한 旗人들이 기거하기 위해 건립된 村鎮이었고 식량을 공급하던 곳으로 旗營과 旗庄이 있었다. 黃土北店村은 明 13陵 조성작업을 위해 건설된 행궁이 기원으로 북경 주변의 市鎮들은 황성의 노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런데 1870년대 이래 점차 식량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市場을 통해 북평성과 청하진 주변 농촌의 상품분배가 이루어지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청하진 서북에서 청하진 이남 그리고 西直門까지가 무역구로 기능하게 되었다. 청하진 이북은 잡곡의 생산구이며 식량시장의 수집구의 기능을 하고 청하진의 이남은 경지도 적고 농업생산이 원활치 않아 청하집시 즉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했었다. 이 때문에 청하진 이남 지역이 농작물 분배구가 된 것이다. 청하진 인근 촌의 소상점은 기름, 소금, 장류 등 일용품을 취급했고 귀중품, 농기구, 농업재료, 화장품 등은 식량시장 수집구역에서 교환되었다.

이러한 향진시장의 출현은 청하현은 전통농촌사회의 자급자족경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수공업과 현대공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조건에서 성진주변의 농촌이 전통군사와 정치성격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소비도시에 식량과 노역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깬블 교수가 1919년 사회조사를 한 것에서 북경성은 정치중심이지 상업이나 공업중심이 아니라고 했었기에 청하조사지역의 경제총체도경을 보면 성진향간의 의존관계, 부단히 유동하고 교환하는 무역단위였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sup>41)</sup>

경제활동은 혈연과 혼인관계로 구성된 4. 8명의 인구가 주로 수행했고

41) 彭秀良, 「甘博: 中國都市社會調查的先行者」, 『中國社會工作』 9期, 2020, 44-45쪽.

종족세력은 이미 쇠락한 상황이었다. 직업구성은 상업인구가 25%였고 외부인이 통제하였으며, 상업조직은 가정이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점은 주로 식량가게가 주를 이루었다. 고용인구는 22.9%로 시장을 통해 새로운 사회형태가 출현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직업분업은 농업생산계통 내부의 토지자원 분배의 긴장감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장교환을 통해 구조적인 압력이 붕괴되어 가면서 노동력과 자본이 평형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인구유동 부분에 대한 조사를 증시하여 鄉, 鎮, 省 삼자 간의 농촌인구의 유동을 보면 도시화가 전개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양카이다오는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구도시가 소비와 노역에서 개방되면서 농촌의 도시에 대한 자유로운 유동의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자연스런 운동이 區域내부에 생태계를 변화시켰을 것이며 반대로 인근 농촌인구가 도시로 점차 이동하면서 도시의 농촌에의 요구가 강해지고 농촌사회와 성진시장의 재부공급능력이 이 지역경제총체의 안정성 정도를 결정짓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商會, 靑苗會, 農會 등 경제조직의 유형에 대한 조사도 증시되었는데 조직과 제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기도 했다. 청하촌진에는 경자배관 전후시기 청묘회가 있었다. 청묘회는 자발적인 방위조직의 성격을 띤 것이었으나 1928년 현급행정개혁이 시행된 이후 보위단과 향공소가 청묘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위단과 향공소는 청묘회의 수장과 회원이 합류하며 향촌공공사업은 정교합일政教合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보위단과 향공소의 기능은 치안, 지방신과 관제에 대한 제사, 공산의 관리, 공공건축, 촌학교육, 토지권리와 관련된 분규의 조정, 가정 간의 분쟁 조정, 군사와 행정의 문제 처리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었다. 조직만 바뀌었을 뿐 청묘회의 수장과 회원이 그대로 활동했다. 청묘회는 1930년대부터 군사, 행정의 문제가 증가하자 재정구조에 문제가 생겨

농민에게 받는 수입으로 채웠는데 북부의 최대 청묘회 조직인 黃土北店村 靑苗會는 군대 징발에 재정을 조달하면서 祀廟 건축이나 공공사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향촌의 종교적 정신적 결집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파악했다.<sup>42)</sup>

상회와 관련된 집시에 대한 조사도 하였는데 청묘회처럼 현급행정개혁 이후의 변화에 주목했다. 1928년 이후 청하시진 사회는 북평북교, 하북성 宛平縣과 昌平縣으로 나뉘었다. 국민정부의 현조직법이 실시된 이후 촌진 위에 구급단위가 생긴 것이다. 이로 인해 청하진은 청하교 남북을 경계로 두 개의 지방경찰국과 보위대가 있는 경구로 나뉘었다. 남쪽은 北平北郊 第一警區第九署의 담당이고 북부는 하북성 완평현 제 5구로 완평현 정부가 보위단과 4개 특별경찰국을 두었다. 지방정부의 수입으로 보면 市集에서 징수된 식량세, 목축세, 과일세 등이 포함된 牙稅가 지방세수의 중요한 자원이었다. 당시 현급체제로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현급재정이 독립되지 않아 지방세수가 조달되지 않아 현정부차원의 공적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한편 청하진의 집시는 청하진 이북의 靑龍橋, 平西府, 肖家河와 湯山の 村市와 청하진의 지방시장, 북평성내의 서직문시의 중심시장의 3급시장이 순환하여 이루어지고 주로 농산품을 교역하였었다. 당시 도량형 표준이 각기 다르다 보니 아행牙行이 시장의 신용담보기능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 1925년 경영권표준제도가 도입되자 경리를 둔 斗局이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30년대 들어서자 지방정부가 경리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또한 1929년 『하북성아세잠행규정河北省牙稅暫行章程』에 보면 아세를 농민이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

42) 侯俊丹, 「市場, 鄉鎮與區域: 早期燕京學派的現代中國想象—反思清河調查與清河試驗(1928-1937)」, 204-206쪽.

데 이로 농민은 세금부담이 증가되고 정부는 두국에게 권리를 주어 아세를 더 많이 건을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국이 상회를 경영하고 상회가 가격을 조정하고 이것으로 아세를 농민에게 전가하게 되자 농민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다.

1933년에는 하북성정부가 도량형을 통일하자 향진시장은 두국과 지방정부가 지배권을 확대해 나가게 되고 교역시 화폐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자 농민들은 생산공구나 토지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세금도 농민들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소비할 여력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29년 이전에는 시장이 자연적인 조절기능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정부의 지방정치에 대한 작용으로 균형이 무너지게 된 것으로 분석했고 문제는 기존의 시진의 자연조절방식이 사라졌다는데 있었다. 이에 농민들은 고리대를 써야 했으며 도시에 사는 기인들에게 향촌의 농민들이 고리대로 지배당하게 된 것이라고 파악했다.<sup>43)</sup>

蔣旨昂이 1934년 盧家村의 상황을 조사한 것에서도 51家 중 92.7%가 농사를 지었고 자영농이 농호 전체 70.3%, 반자영농이 29.7%였다. 자영농과 반자영농이 24.2무를 경작했다. 그러나 20무 이하의 농가도 57%나 되었다. 따라서 농민은 농업생산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상업과 노역, 가정수공업 등으로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sup>44)</sup>

1928년 許仕廉의 조사에 따르면 청하현의 문맹률은 69.7%이며 아동의 입학률도 낮고 신문보급률도 낮았다. 청하지역 40개촌에 30개의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완전소학 1개, 초급소학 16개와 私塾이 설립되어 있었다. 당

43) 鄭宝滬, 『清河市集의經濟研究』, 燕京大學法學院經濟學系學士學位論文, 1937, 130-131쪽(侯俊丹, 「市場, 鄉鎮与區域: 早期燕京學派的現代中國想象-反思清河調查与清河試驗(1928-1937)」, 203-204쪽 재인용).

44) 蔣旨昂, 『盧家村』, 燕京大學文學院社會學系學士學位論文, 1934; 侯俊丹, 「市場, 鄉鎮与區域: 早期燕京學派的現代中國想象-反思清河調查与清河試驗(1928-1937)」, 208쪽 재인용.

시 향촌의 아동입학비율은 10개 촌 인구 중 교육받은 자는 1,341명으로 전체 24%에 불과했고 여성은 1.9%만이 학교를 다녔고 이들 중 88.5%가 전통적인 私塾에 다녔다. 근대적 교육기관인 초급소학은 10.6%에 불과했고 고급소학이나 중학교육을 받은 자는 0.5%도 안되었다.

청하현은 자연조절기능이 상실되고 중국향촌에는 전통조직이 사라져 가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농촌의 공공사업이 파산하였기에 새로운 조절 방식이 필요하나 강제적인 행정지배 방식으로 통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도시의 공상업과 국가의 자원 및 세금에 기반해 도시와 균형적인 경제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2. 清河縣 실험현의 설립과 향촌건설 실험

### 1) 실험현 실행조직과 연경대학

연경대학은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학교와 위생사무소의 건립을 돕기로 하면서 1930년 6월 정식으로 청하사회실험구가 건립되었다. 이후 7년간 운영되었는데 참여한 기구는 연경대학 사회학과, 華洋義賑會, 북평화공공정학교(北平華北工程學校), 북평제일산파학교(北平第一產婆學校), 협화의원(協和醫院) 등과 합작하였으며 구公所(區公所) 상회(商會), 동북군 제 7여단, 군정부와 紳士들이 참여했다.

범위는 청하진과 부근의 40개 촌으로 선정했는데 16개촌은 하북성 宛平縣에 속하였고 15개촌은 북평시에, 9개촌은 하북성 昌平縣에 속하며 인구는 3만명 정도였다.<sup>45)</sup>

사회조사의 결과 취할 조치로 다섯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는 남자의 45%, 여자 96%가 문맹이므로 성인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6-11세 아

45) 張德明, 「教會大學與民國鄉村建設—以燕京大學清河實驗區爲個案的考察」, 57쪽.



동의 입학률이 45%에 불과하므로 아동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셋째 위생진료소를 건립해야 하며 넷째 농민이 건립한 판매합작사의 운영을 돕는다. 다섯째 지방정부와 인민이 함께 도로의 건립과 배수 계통의 건립, 관개시설 구축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실행 조직을 만들었다. 1931년에서 1932년 청하실험구의 집행위원회가 경제고, 사회고, 위생고, 연구고 4개로 나누어졌는데 담당자는 연경대 사회학과에서 파견되었다.<sup>46)</sup>

청하현은 위원회제를 시행했는데 다시 주임제로 바꾸었고 더 구체적인 업무로 조직을 분화해서 농촌경제고, 공공위생고, 농촌사회복무고, 농촌사회조사고 4고를 두었다. 농촌경제고는 소규모공업, 신탁합작사, 금융대출, 닭과 돼지 등의 사육, 농업발전공작과 등을 담당하게 했고 공공위생고는 의료원, 공공위생교육, 학교위생 등을 담당했다. 농촌사회복무고는 부녀, 유치원, 도서관, 모친회, 여행, 참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농촌사회조사고는 청묘회, 인구, 농촌소송, 학교, 일용품통계 등의 조사를 담당하게 했다. 경제와 위생, 교육의 일반적인 향촌건설의 활동을 하는 외에 사회학 연구를 위한 사회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따로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담당 주임은 1차는 張鴻鈞이 담당하고 간사는 연경대 사회학과 졸업생 萬樹庸으로 연경대학에서 주도하였다. 각 고 마다 회계를 1명씩을 두고 고원은 3-4명으로 하고 사회학과 학생은 실습을 위해 상주하였고 전체 집행위원장도 청하에 상주하였다. 1933년에는 양카이다오가 주임을 맡았고 간사는 張賀宸이 담당했으며 실험현에는 전문인원이 17명, 겸직 4인, 남녀학생 23명이 실습을 했으며 매주 8시간 정도를 근무하는 방식으로 조

46) 張鴻鈞, 「燕京大學社會學系清河鎮社會實驗區工作報告」, 1933, 鄉村工作討論會編, 『民國叢書 第4編 鄉村建設實驗 第一二集』, 中華書局, 1935, 60-65쪽.

직이 완비되었다.

전체 직원이 참가하는 회의는 매월 한차례 수행했고 전문가 회의의 성격을 띤 고문위원회는 3개월마다 소집되었는데 고문은 해당지역의 신사와 상인 대표와 외부의 참가자가 맡았다. 고문위원회는 농업위원회, 모직위원회, 합작위원회, 소자본대관위원회, 부녀위원회, 旬刊위원회, 연구위원회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농민들은 교회의 선교목적이나 정부가 세금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불신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sup>47)</sup> 미국인 D. W. Edwards는 수천년 간 형성된 전통생활방식과 빈곤한 생활수준, 무력함 등으로 농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sup>48)</sup>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민중들이 불신의 태도를 보일 때는 지방의 관리, 신사나 촌장 등의 정치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량을 확대시켰다.

한편 1932년 12월 남경정부가 2차 내정회의에 향촌건설운동의 지식인들을 참여시키고 전국적 조직을 만들고자 했으나 정부를 대표하는 李石曾이 향촌건설운동을 주도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여 전국적인 단일조직이 아닌 향촌공작토론회로 축소되었고 양카이다오도 이와 같은 입장이었다.<sup>49)</sup> 그러나 점차 향촌건설은 縣의 정치라는 문제로 나아가게 되고 공산당의 소비에트를 제어하기 위한 기관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었다.

47) 張學東, 齊鳳, 「近代“清河實驗”及其“學院派”社會工作風格」, 『河北廣播電視大學學報』第5期, 2015, 14쪽.

48) 張德明, 「教會大學與民國鄉村建設—以燕京大學清河實驗區爲個案的考察」, 60쪽.

49) 楊開道, 「我所知道的鄉村建設運動」, 全國政協文史資料委員會, 『文史資料存稿選編』,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2 (<http://www.ihss.pku.edu.cn/>, 2020.12.3.); 張鴻鈞, 「燕京大學社會學系清河鎮社會實驗區工作報告」, 1933, 鄉村工作討論會編, 『民國叢書』第4編 鄉村建設實驗 第一集, 中華書局, 1935, 1-8쪽. 1933년 7월 추평회의에서 보고, 장원선과 허사렴은 공작회의로 이름짓고 특별한 조직으로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연경대학의 향촌건설운동에의 역할에 대해서는

성공의 요인은 세 가지로 방법, 인재, 경비인데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 연경대학은 무수한 인재 제조를 하여 국내의 농촌공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연경대학은 이론만이 아닌 실천적 과학, 과학적 실천을 하는 곳이다. 지도자 인재 역시 대학교육의 훈련이 필요하다. 어떤 이는 연경대학은 교회학교이며 서방학교, 황궁학교라고 하지만 하버드옌칭 등에서 보이듯 중국에 대한 이해나 문화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중국의 향촌문제는 동서문화의 충돌의 결과로 해결을 위해 서로 쌍방문화의 이해가 필요하다. ... 현재 비록 큰 성과는 없지만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연경대학의 농촌건설과의 설립은 중국대학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농가의 자제, 가난한 집안의 자제들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sup>50)</sup>

라고 하여 국내 농촌기관을 책임질 인재를 배양하고 대학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농촌의 자제들을 양성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당시 청하실험구의 청년들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완평현, 창평현과 북경시 세 개 지역의 향촌소학 졸업생들이 청년들의 66.7%였던 것이나 1936년에는 협화의학원의 담당자, 연경대 가정과의 파견생, 경제학과의 버나드 교수와 생물학과 학생 등 연경대학과 연계된 학과나 조직의 인원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연경대학이 주도적 역할과 기능을 한 것도 양카이 다음의 사상과 연계되어 있다.

2) 교육, 위생지식의 보급과 지역여론의 조성

교육의 보급은 가장 중시되고 먼저 이루어진 것이었다. 아동의 교육을

50) 楊開道, 「燕京大學農村建設工作」, 117-126쪽.

위해 청하에서 6-14세의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의탁아동구락부를 시행했다.<sup>51)</sup> 1931년 3월 6세 이하 아동이 다닐 유치원을 八家村, 三齊村, 黃土店村에 설립하고 아동 도서관을 설립해 40촌의 아동에게 공급했고 4월 4일 아동절에 운동회를 거행했으며 우두접종도 시행했다. 이외 소학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학교수법, 관리, 오락, 학교위생, 가정수공업, 농업개량, 모방직공업 등에 대해 소학교사 토론반을 만들었는데 농촌의 실정에 부합하는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sup>52)</sup> 1932년 10월 아동도서관을 청하도서관으로 바꾸어 7천여권을 소장하고 성인, 아동, 순회 3부로 하여 보급했다.

부녀자들에 대해서도 생산기술을 제고시키고 문맹을 퇴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30년 여자수공반을 만들고 1931년 2월엔 가정훈련반을 개설해서 15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재봉, 조리 등의 과정을 만들어 교육하고 8세에서 26세 여성을 대상으로 부녀구락부도 만들었다. 1933년 49명의 여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고 수공반, 모친회, 가정훈련반 등을 개설하여 육아위생, 가정상식 등을 가르쳤다. 기술은 봉제, 요리, 가정관리 등의 가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의 부녀자들의 지식수준을 높였고 수입을 늘이는데 기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sup>53)</sup>

공공위생과 관련된 업무도 시행했는데 1931년 7월 1일 실험구는 협화의원, 북평공공위생사무소, 제 1조산학교 등과 함께 공공위생계획을 수립했다. 전문적인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1931년 7월 북평의 협화의원에서 매주 6명을 파견해서 진료를 보게 하고 약방을 매일 열게 했다. 1932년 9월

51) 馬恩澤, 石震, 「鄉村振興背景下“清河實驗”社會治理思想的再研究」, 70-77쪽.

52) 彭秀良, 「楊開道與農村社會工作」, 60-61쪽.

53) 鄧淑賢, 『清河實驗區婦女工作』, 燕京大學社會學系 1935年 卒業論文(張德明, 「教會大學與民國鄉村建設—以燕京大學清河實驗區爲個案的考察」, 59쪽 재인용).

에는 정식으로 위생고가 설치되고 1933년 봄 향촌의원이 개원했다. 이에 전문의사들이 주 3회 진료를 했으나 외과만 운영되었는데 이는 내과는 농민들이 신뢰하지 않았고 향촌의 중의를 더 신뢰했고 비용도 더 저렴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의원에서 진료를 볼 뿐 아니라 국민정부가 규정한 매년 3월에서 5월, 9월에서 11월의 종두 시행도 하였으며 1936년에는 무료 접종을 시행하는 등 영향력을 키워 나갔다. 또한 소학교와 연계하여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3개촌마다 분진소를 두고 매주 2주마다 진료를 하였다. 향후에는 동북군 제 7여단, 공안분국, 소학교, 지방신사들을 모아 위생운동대회를 개최하여 공공위생 지식을 확산하는데까지 나아갔다.

청하실험에서는 특히 대중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민의 담론 형성을 의식적으로 노력했는데 1930년에 『清河半月刊』을 일년에 4번 발간해서 풍속개량, 지식전달, 의견교환 등을 도모했으며 화북의 모범진으로 만들 것을 목표로 했다. 1932년에는 시키고 학파의 대표자인 파커가 許仕廉의 요청으로 연경대학 사회학과의 객좌교수로 와서 청하실험에 참여했고 11월 말 파커교수의 의견을 수용해서 완평현의 오구교육회와 연경대학 신문학계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清河旬刊』을 발간했다. 파커는 지방사회는 여론과 선전을 통해 통제되며 민주적 사회를 위한 기본 공구가 신문이고 공동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주로 공민도덕과 가정도덕을 포함한 내용과 일상청결, 방역, 농사기술지식 등이 담겨 있었고 실험구 내의 공소와 학교, 길거리에 배포하고 벽보로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양카이다오가 연경대학 사회학과 주임이 되면서 청하실험현은 연경대학의 자금을 지원받아 4년간 운영되었고 5년째부터 청하 지역의 자금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또한 1934년 록펠러 기금으로 연경대학에 농촌건설과가 만들어져 양카이다오가 주임이 되고 1935년 법학원 원장이 되었는데 당시 양카이다오는 연경대학의 사회, 경제, 정치 3학과의 중심을

농촌을 향하게 하고 학생들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제간 실제적 연구와 농촌건설을 연계하고 대학의 기능을 농촌건설의 제도적 기제로 활용하고자 한 양카이다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sup>54)</sup>

### 3) 合作社와 소농경제 발전 구상

양카이다오는 계급대립이 아닌 계급조화를 중시했고 농촌의 문제를 도시와 농촌의 대립으로 파악했다. 중간상인의 착취와 이로 인한 농촌의 고리대 문제가 농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sup>55)</sup> 이 때문에 소액대관과 합작사의 설립을 중시했고 농민이 주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합작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고리대에 시달리며 소비능력이 약화된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험현은 1931년 소액대출을 시행했다. 주로 땅이 없는 전호(佃戶)(49%)와 빈궁한 소자영농(小自耕農)(35.28%)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소액대출은 자영농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농민과 토지를 긴밀히 연결시키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며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소액대출은 전체 243戶가 이용하여 도움을 받았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정도로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1933년 신용합작사 사업이 시작되면서 소액대관은 중지되었다. 먼저 가정 농업과 수공업 생산을 위해 신용합작사를 건립하고 생산과 수송, 판매도 연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합작사의 설립은 고리대에 대항하고 중간상인의 착취에 대항하여 상업자본과 경쟁하여 향촌의 파괴를 막는 방법으로 간주되어 무엇보다 농민에게 합작의 습관과 방법을 익

54) 邱澤奇, 「楊開道先生与他的農村社會學工作」, 26쪽.

55) 郭占鋒 吳麗娟 付少平, 「論楊開道的中國農村社會建設思想」, 88-96쪽.

히게 하는 것을 중시했다.

우선 구내의 촌민은 호를 단위로 합작사에 입사하게 하였고 반드시 사원 전체 회의에서 결의한 공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합작사의 감사회, 합작지도부, 華洋義賑會의 대관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특히 단결과 기율을 익혀야 함이 강조되었다. 합작사무는 협조하고 분열하지 않고 단결하도록 하였는데 황토남점과 황토북점촌에서 모두 합작사의 규약을 위배한 정황이 있을 때 위배한 사원은 전체회의를 통해 출사되었다. 또한 황토북점촌은 내분이 발생되어 해체되고 다시 조직되었는데 농민들은 스스로의 조직을 근대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사회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청하에서 영향력 있는 대표적 조직은 靑苗會와 상회, 국민당 구분부, 농민협회였다.<sup>56)</sup> 청묘회는 기우제, 해충제거 활동 및 지방지도자를 중심으로 단련을 조직하기도 했던 전통조직으로 청하실험구는 이를 개조하여 합작사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지방 종교에 기반해 公産을 관리했던 靑苗會는 농민 각자 소액을 투자해 설립했었는데 이러한 전통방식에 기반해 합작사를 조직한 것이다. 즉 청묘회를 기반으로 한 社區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부의 투자를 흡수한다는 방식이었다. 이는 기존의 정치와 행정조직에 좌우되지 않는 농민들의 자연적인 공동체인 사구의 대표적인 전통조직을 청묘회로 간주하고, 이를 근대적인 규약을 기반으로 근대적 조직으로 전환시켜 농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sup>57)</sup>

56) 張學東, 齊鳳, 「近代“清河實驗”及其“學院派”社會工作風格」, 13쪽.

57) 근대적 합작사 조직의 중국 도입과 관련 정현의 신용합작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봉건적이라고 보았던 전통농촌사회의 錢會 방식을 차용하게 된 이유를 분석하였다. 정현의 청묘회도 전통조직에 기대어 합작사를 운영한 점에서 유사하나 근대적 조직으로 전환시키는데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손승희, 「민국시기 신용합작사의 전통 ‘錢會’방식의 활용—하북성 定縣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

물론 盧家村 합작사처럼 고리대로 횡포를 부려온 閻子恒과 달리 張玉亭, 閻玉明 등 열신 세력이 여전히 합작사를 좌우하는 폐단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농민들의 여론이 작용할 수 있는 조직의 틀을 만들어 내었다는 점과 농촌 조직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신용합작사는 연합을 기본으로 하도록 했고 연합신용을 담보로 극빈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비용을 빌릴 수 있었고 소지주나 자영농도 혜택을 받으며 1934년에는 12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합작사가 입비 2원을 내야 하는 규약에 의하면 가난한 농민은 배제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盧家村 合作社의 경우 합작사원 가운데 땅이 없는 경우는 2가구 뿐이었고 사원들은 촌 전체의 45.6%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나 사원들이 평균 21.4 畝를 지녔던 것은 사원 대부분 소자영농이었음을 의미한다.<sup>58)</sup>

1934년에는 촌락간 연계된 합작연합사가 탄생했고 합작상점에 대출을 하게 되었다. 자본은 華洋義賑會와 연경대학이 금융기관과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1935년에는 전구대표대회의 의결이라는 방식으로 완평현재 1구 합작사는 중국은행에서 2천원을 빌려와 운송사업을 하여 도시의 중간상인에게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는 등 합작사는 도시에 대한 농촌의 대응이자 농촌사구의 조화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간주되었다.<sup>59)</sup>

또한 농민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조직임을 강조하여 생산합작사는 집

구』 77, 2018, 66쪽.

58) 王賀宸, 「燕大在清河의 鄉建實驗工作」, 『社會學界』, 1936.9(張德明, 「教會大學與民國鄉村建設—以燕京大學清河實驗區爲個案的考察」, 『北京社會科學』 第2期, 2013, 57-58쪽 재인용).

59) 黃永軾, 「批判楊開道的階級調和的反動謬論」, 『理論戰線』 3期, 1958, 68쪽.



약화나 기계화를 위한 연합 농장모델이 아닌 화북지역 농촌의 전통적인 농전수리합작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생산합작사도 자영농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농지개발로 이익을 높이하고자 적극적으로 운영되어 1936년에는 농지가 1,000무 정도 증가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소비합작사, 공업합작사, 운송합작사도 조직되었다.

#### IV. 맺음말

청하현의 실험은 항일전쟁의 발발로 1937년에서 1945년까지 중단되었고 양카이다오는 齊寧에서 화북지역의 향촌건설운동의 명맥을 이어갔다. 또한 연경대학의 청하현 실험도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경제 형식 배후에 존재하는 관념과 윤리체제와 풍습에 대한 파악을 중시하는 社區研究를 특성으로 사회학의 중국화에 기여하였다.

양카이다오는 도시사구연구와 공업구국의 논쟁이 주류가 되는 상황에서도 농업구국을 지속적으로 담론화 시키며 향촌건설을 통해 농촌사회연구의 이론을 실천해 나갔다. 청하 실험현의 건설은 그러한 사구연구라는 지식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과정이었다.

양카이다오는 연경학파로서 농촌자치를 위해 지방공동사회인 농촌사구가 다시 조절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합작사를 조직해야 한다고 연구와 조사를 통해 밝혔다. 또한 도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농촌의 자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농촌건설의 방향으로 보았기 때문에 근대적 조직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지방공동사회의 구성원간의 정신적 공동체의 성격도 포함했던 청묘회라는 전통조직을 활용하여 합작사를 건립했지만 그 지향점은 근대 농촌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

특히 청하 실험에서 전개된 합작사의 조직과 운영과정에는 양카이다오가 소자영농 중심으로 농민 스스로의 생활조직과 민주적 의결 방식을 통해 농촌의 자발적 생산증대를 모색한 것이 드러난다. 하지만 당시 국가가 상업과 금융자본의 농촌 내의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농민이 주체적으로 근대 조직을 설립하는 것도 쉬는 것은 아니었으며 자연촌락의 범주내에서만 운영되는 폐쇄성도 존재했다. 즉 소농경제하의 농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그쳤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경학파의 사회조사는 향촌건설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바탕이 되었으며 농민의 주체적 조직의 중요성과 대학과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현실참여 공간의 확대를 통해 향촌건설운동의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sup>60)</sup>

양카이다오를 비롯한 연경학파는 서구의 사회조사방법을 과학적 연구의 중요한 방법으로 수용했고 이를 중국사회에 적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를 사회학의 중국화라고 본다면 실험이라는 실천과정과 이론의 상호작용이라는 중국의 전통적 지식계보의 맥락에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청하실험현의 활동에는 서구 지식권력이 중국 내 전파되고 수용되는 과정이 내재하고 있다. 서구민주적 조직과 가치체계가 농촌 내에 파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록펠로재단과 교회대학인 연경대학의 지원 및 교회관계자들의 적극적 지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구의 가치체계가 그대로 이식되었다기 보다는 중국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과정도 거쳤고 농촌사회의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기

60) 청하조사는 국가지방정치술의 정량연구(40년대 국민정부행정원의 토지조사)를 비판하게 했고 미국농촌토지점유관계조사가 중국농촌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2017년 渠敬東 강연, 북경대학인문사회과학연구원(<http://www.ihss.pku.edu.cn/>).

위해 현대사회 지식기술을 수용해서 재지운동의 동력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자원배분 등의 포괄적 대응은 대학의 전문가가 담당함과 동시에 근대지식을 지닌 현지 농민으로 교육하여 충원하고자 하였다. 이과정에서 연경대학을 대표하는 대학과 근대적 지식인의 역할이 중시되었는데 이들이 국가의 도시와 농촌의 자원배분의 역할을 중개하고 농촌의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자 했다. 그 실천의 구체적 과정에 지식기제가 작동하였는데 근대적 지식인과 대학과 농촌사회학 지식이 향촌건설운동의 정치적 사회적 운동과 결합하여 지식인과 근대지식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지식의 기제에 대한 설계와 작용에 대한 농촌사회에의 함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지니며 작용하고 있다.

(2021.03.15. 투고 / 2021.04.19. 심사완료 / 2021.04.23. 게재확정)

[Abstract]

**Yang Kaidao's Experimentation on Rural Construction  
in Qinghe County and the Mechanism of Proliferation  
Modern Knowledge into Rural Society**

Choi, EunJin

This study examines Yang Kaidao's ideas for the construction of rural society and his efforts to put the knowledge into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as a part of the rural construction movement during the Nationalist Government period in China,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intellectual climate of rural sociology research.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extend our understanding of various factions that participated in rural construction movement as well as to examine the dissemination path and mechanism of Western knowledge into the Chinese society. The intellectuals from the Yenching University's sociology department, who introduced modern sociology into China formed a school and called themselves the Yenching School, and they were characterized by their emphasis on social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They aimed at improving rural communities based on accurate perceptions of rural society in China that were yielded from the social surveys.

Yang Kaidao carried out the detailed surveys on rural society and conducted the experimentation in qinghe county based on the accumulated knowledge from the survey. One of his goal in the experi-

ment was to form a systematic and modern organization for rural society, and he particularly emphasized the role of local leaders to mobilize the people effectively. Since the rural leaders was expected to be well-informed with the modern knowledge and trained in the university, which brought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rural area. This means that the modern knowledge of the West became established in Chinese Universities and took part in reforming rural China, in turn, the space in rural society where intellectuals trained at universities were able to work was expanded. From the experimentation in qinghe county, it confirmed that the data from the social surveys of traditional organization was indeed applied to the revision of organization, and the revised organization transformed the rural society.

□ Keyword

Knowledge Mechanism, Yang Kaidao, Yenching School, Qinghe Experiment, Cooperative Society, Community Studies

[참고문헌]

- 鄉村工作討論會編,『民國叢書』第4編 鄉村建設實驗 第一二集,中華書局, 1935.
- 楊開道,『農村社會學』,上海世界書局,1929.
- 楊開道,『社會學研究法』,上海:世界書局,1929.
- 楊開道,『農村自治』,上海:世界書局,1930.
- 楊開道,「歸農運動」,『東方雜誌』20卷 14號,1923.
- 吳景超,『第四種國家的出路』,商務印書館,1936.
- 잉싱(應星) 장영석 옮김,『중국사회』,사회평론,2017.
- 李文海主編,『民國時期社會調查叢編(鄉村社會卷)』,福建教育出版社,2005.
- 鄭大華 著,『民國鄉村建設運動』,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0.
- 劉峰,『20世紀30年代農村復興思潮研究』,湖南大學碩士論文,2015.
- 李爽,「中國社會學社成員社會建設思想研究(1928-1937)」,東北師範大學 博士論文,2008.
- 任金帥,『近代華北鄉村建設工作者群體研究』,南開大學碩士論文,2013.
- 손승희,「민국시기 신용합작사의 전통 '錢會'방식의 활용—하북성 定縣을 중심으로」,『중국근현대사연구』77,2018.
- 최은진,「中國 鄉村建設運動의 확산과정과 鄉村教育의 함의」,『史林』72, 2020.
- 蔡雙全,「20-30年代學術界關於“以農立國”與“以工立國”之爭探析」,『湖 北大學成人教育學院學報』第29卷 第5期,2011.
- 曹天忠,「1930年代鄉村建設派別之間的自發互動」,『學術研究』第3期,2006.
- 郭占鋒 吳麗娟 付少平,「論楊開道的中國農村社會建設思想」,『社會建 設』第6卷 第4期,2019.
- 侯俊丹,「制度變遷下的知識治理:早期燕京學派的清河試驗」,『學海』5

- 期, 2017.
- 侯俊丹, 「市場, 鄉鎮與區域: 早期燕京學派的現代中國想象——反思清河調查與清河試驗(1928-1937)」, 『社會學研究』 3期, 2018.
- 黃永軾, 「批判楊開道的階級調和的反動謬論」, 『理論戰線』 3期, 1958.
- 黃祐, 「民國時期大中專院校對鄉村建設運動的參與」, 『教育評論』 2期, 2008.
- 雷洁琼, 水世瑋, 「燕京大學社會服務工作三十年」, 『中國社會工作』 4期, 1998.
- 李爽, 「20世紀二三十年代社會學者農村組織模式研究」, 『北方論叢』 第4期, 2011.
- 劉精明, 「試評述楊開道農村組織理論」, 『社會學研究』 4期, 1991.
- 羅朝暉, 「“以農立國”與“以工立國”之爭—20世紀40年代關於中國發展道路論爭的再認識」, 『長春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26卷 第1期, 2007.
- 馬威, 「楊開道學術研究綜述」, 『華中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總80期, 2009.
- 彭秀良, 「楊開道與農村社會工作」, 『中國社會工作』 7期, 2018.
- 齊釗, 「社區·區域·歷史: 理解中國的三種進路——對燕京大學社會學系學術傳統與研究特色的再分析」, 『開放時代』 6期, 2013.
- 邱澤奇, 「楊開道先生與他的農村社會學工作」, 『社會學研究』 5期, 1987.
- 童富勇, 「論鄉村教育運動的發軔興盛及其意義」, 『浙江學刊』 2期, 1998.
- 王軍, 「行政院農村復興委員會組織職能探究」, 『河北廣播電視大學學報』 6期, 2015.
- 王先明, 「20世紀前期中國鄉村社會建設路徑的歷史反思」, 『天津社會科學』 6期, 2008.
- 王先明, 李偉中, 「20世紀30年代的縣政建設與鄉村社會變遷——以五個縣政建設實驗縣為基本分析樣本」, 『史學月刊』 第4期, 2003.
- 蕭子揚, 「“清河實驗”: 當代中國農村社區治理的路徑選擇」, 『世界農業』 7期, 2017.

- 蕭子揚,馬恩澤,石震,「鄉村振興背景下“清河實驗”社會治理思想的再研究(1928-1937)」,『華東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34卷 第2期, 2019.
- 徐其龍,「民國時期楊開道与梁漱溟鄉約改造思想比較研究」,『哈爾濱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22卷 第1期, 2020.
- 徐勇,徐增陽,「中國農村和農民問題研究的百年回顧」,『華中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6期, 1999.
- 宣朝慶,「地方人才培養与社會重建:民國鄉村建設研究中長期輕忽的一個問題」,『天津社會科學』第4期, 2011.
- 宣朝慶,「百年鄉村建設的思想場域和制度選擇」,『天津社會科學』第3期, 2012.
- 宣朝慶,「突破農村公共品供給的困境——民國知識分子參與鄉村建設運動的時代意義」,『山東社會科學』總第210期, 2013.
- 薛毅,「民國時期鄉村建設運動中的華洋義賑會」,『南京曉莊學院學報』第2期, 2010.
- 閻明,「楊開道与清河“實驗室”」,『中國社會導刊』第6期, 2008.
- 閻書欽,「民國學界對美國社會學理論的選擇与融會:對民國時期社會學中國化一個側面的考察」,『近代史學刊』第10輯, 2013.
- 楊偉宏,惠曉峰,「20世紀二三十年代鄉村建設運動的啓示」,『探索與爭鳴』10期, 2009.
- 虞和平,「民國時期鄉村建設運動的農村改造模式」,『近代史研究』第4期, 2006.
- 張德明,「教會大學与民國鄉村建設—以燕京大學清河實驗區為個案的考察」,『北京社會科學』第2期, 2013.
- 張學東,齊鳳,「近代“清河實驗”及其“學院派”社會工作風格」,『河北廣播電視大學學報』第5期, 2015.
- 鄭大華,「關於民國鄉村建設運動的幾個問題」,『史學月刊』第02期, 2006.



- 鄭杭生, 李迎生, 「中國早期社會學中的鄉村建設學派」, 『社會科學戰線』 3期, 2000.
- 周石峰, 「孰爲本末:20世紀30年代前期的城鄉關係之爭」, 『貴州財經學院學報』 5期, 2010.
- 楊開道, 「鄉約制度的研究·序言」 (<http://www.ihss.pku.edu.cn/templates/xw/index.aspx?nodeid=242&page=ContentPage&contentid=3997>).
- 楊開道, 「我所知道的鄉村建設運動」, 全國政協文史資料委員會, 『文史資料存稿選編』,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2 (<http://www.ihss.pku.edu.cn/>, 2020.12.3.).
- 楊開道, 「我爲什麼參加農村工作」, 『民間』, 1935 (<http://www.ihss.pku.edu.cn/>, 2020.12.3.).

